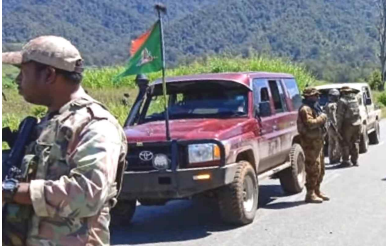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파푸아뉴기니서 산악지역 부족 간 유혈 충돌...“수십 명 사망”**



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서 부족 간 유혈 충돌이 벌어지면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 19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경찰은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북서쪽으로 600km 떨어진 산악지역 엔가주 와바그 마을 근처에서 26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지역에서 시킨 부족과 카에킨 부족, 암블린 부족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총격전이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나온 사망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지 카카스 파푸아뉴기니 경찰청장 대행은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 동안 파푸아뉴기니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살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이번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64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사망자 수를 26명으로 정정했다. 다만 총에 맞은 상태에서 숲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푸아뉴기니는 호주 북쪽 뉴기니섬의 동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속한 서쪽 파푸아와 달리 독립 국가다.

하지만 산악지역과 열대우림 지역에는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으며 다양한 부족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습을 바탕으로 살아간다. 부족들 간에는 서로 말도 통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서로 싸우며 살아왔으며, 최근에는 총포류 등 현대 무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충돌할 때 발생하는 인명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경찰은 이번 충돌에도 자체 제작 무기는 물론 M16, AK-47 등 소총과 산탄총 등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엔가주에는 17개 부족이 지난 수 세기 동안 영역 다툼, 토지와 자원 등의 이유로 서로 갈등을 벌이면서 마을이 습격당하고 불타는 등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지난해 이 지역에 봉쇄령을 내리고 총기와 탄약이 공급되는 것을 막고 있다. 또 1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했으며 진압과 중재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지만 워낙 땅이 넓고 지형이 험한 데다 치안 병력도 많지 않아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우리는 파푸아뉴기니 친구들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의 최대 원조국이며 파푸아뉴기니의 위기 상황 시 군과 경찰력을 지원할 수 있는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린도전서 1:10)

하나님, 인간의 탐심과 죄악으로 인해 수 세기 동안 해결되지 않은 부족 간의 분쟁으로 수십 명의 영혼이 희생되고 황폐해져 버린 파푸아뉴기니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땅의 교회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파푸아뉴기니 안에 분쟁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한 호주의 도움의 손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위기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함으로 주의 영광을 파푸아뉴기니에 나타내 주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모로코 해군, 유럽행 아프리카 이주민 141명 구조

모리타니 해안에서 보트를 타고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를 향하다 조난한 아프리카 이주민 141명이 모로코 인근 해상에서 모로코 해군에 의해 구조됐다고 18일 로이터 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카나리아 제도는 아프리카 서북부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령 군도로, 아프리카 대륙과 가장 가까운 카나리아 제도의 섬까지는 115km로 가까워 유럽행 아프리카 이주민이 몰리고 있다. 스페인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이주민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증가했다. 모로코 해군이 2023년 한 해 해상에서 구조한 아프리카 이주민은 1만 6,818명으로 전년보다 35% 늘었다고 매체는 집계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디도서 3:6-7)

하나님, 전쟁과 박해 등 암울한 상황 속에 고향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찾아 유럽행을 택하는 아프리카 이주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주에 성공해도 막막하고 가혹한 현실과 보장 없는 미래가 예상되는 이주민에게 유럽 교회가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소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문제에 주의 통치하심을 구하오니 모든 영혼이 주께 돌이켜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아프간, 폭우·폭설로 산사태 발생... 25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동부 누리스탄 주에서 19일 폭우와 폭설로 산사태가 발생해 나크레 마을을 휩쓸어 주민 25명이 사망, 8명이 다쳤다고 AFP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프간 재난관리부는 이 산사태로 가옥 약 20채가 심하게 파손됐으며 아직 눈과 잔해 아래 실종자가 있어 군이 투입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악천후로 인해 중장비가 투입될 수 없어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누리스탄 주는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으로 힌두쿠시산맥 남쪽 끝에 있어 대부분 산악 지형으로 겨울철에는 폭설이 내린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골로새서 1:6)

하나님, 폭우와 폭설로 산사태가 반복되는 아프간을 돌봐주시고 악천후로 인해 인명구조가 지체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다스려주소서. 산사태뿐 아니라 전쟁과 지진, 기근, 탈레반의 장악으로 마치 선교의 문이 닫힌 것 같은 이 땅에 그루터기와 같은 복음의 증인을 통해 진리가 모든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모든 영혼이 복음으로 살아나 온 천하에 아름다운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어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리라”
북부 무슬림에 붙잡혀 노예로 전락한 남수단 기독교인들...1,500명 풀려나



지난해 남수단에서 노예 상태에 있는 기독교인 1,500명이 자유의 신분으로 풀려나도록 국제기독교연대(CSI)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페이스와이어가 최근 소개했다. 페이스와이어에 따르면, CSI는 지난해뿐 아니라 지난 30년간 노예 상태의 기독교인 10만여 명이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사역해 왔다.

CSI의 조엘 벨드캠프는 “지난 수십 년간 남수단인을 노예로 삼으려는 무슬림들의 공격 때문에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수단에서 벌어진 강제 노예 문제는 1980년대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단은 단일 국가였으나 아랍인 무슬림이 지배하는 북부와 흑인 기독교인이 지배하는 남부의 내전으로 수단은 남북으로 분단됐다.

이때 북부 무슬림 정부는 남부에 대한 전쟁을 펼치면서 전쟁 무기로 ‘노예제’를 채택했다. 이런 이유로 2005년경 분쟁이 끝날 때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는 등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이 포로로 붙잡혀 노예로 살며 고통스럽고 고된 삶을 살고 있다.

무슬림은 포로들에게 폭력과 성적 학대를 가해 이들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한다. 그로 인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했다. 소년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무슬림으로 살도록 강요받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처우도 잔혹하였다.

노예 생활을 하던 한 소년은 도망가다 다시 붙잡힌 이후 손가락을 절단당하기도 했다. CSI는 이러한 어렵고 치명적인 상황에 부딪친 사람들을 위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지하 네트워크로 이러한 노예들의 자유를 돕고 있다. 이 사역은 북수단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아 집으로 데려오는 동정심 많은 무슬림과 접촉하면서 시작됐다.

노예들은 비밀경찰과 군대를 피해 밤에 국경을 향해 걸어서 이동한다. 벨드캠프는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노예들의 처우에 공포를 느끼는 무슬림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CSI는 가축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무슬림에게 제공하는 대신, 남수단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 물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출애굽기 2:24-25)

하나님, 북수단 무슬림들이 자신이 가진 힘과 무력으로 주님의 성도들을 노예로 삼아 폭력과 학대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부인하게 만드는 악한 시도를 멈추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의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사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자들이 영과 육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교회들을 통해 이 일을 도왔던 무슬림들이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안에 함께 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 파키스탄 기독교인, 신성모독 혐의로 종신형 선고받아

파키스탄의 한 기독교인이 지난달 24일 신성모독 혐의를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모닝스타뉴스가 최근 전했다. 라호르에 거주하는 팬슨 사히드(56)는 그의 아내가 공유한 게시물 댓글에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 모독적인 발언을 올린 혐의로 2022년 3월 자택에서 체포돼 고문받고 자백을 강요당했다. 그의 아내는 그가 2019년에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누군가가 악용해 신성모독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의 여동생 소니아 사히드는 이번 판결이 가족과 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며 그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그의 가족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을 옮겼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라호르 고등법원에 항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 법적 대리인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빌립보서 2:15-16)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팬슨 형제와 그의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법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위정자와 법원 관계자들에게 거짓 없는 양심과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독교인들이 반복적으로 당하는 억울함이 멈춰지도록 주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소서.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 없는 자로 파키스탄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 이란, '성경 배포한' 기독교인 체포 급증

이란 당국이 성경 배포자를 표적으로 삼으면서 작년 이란 기독교인들의 체포가 급증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체포된 사람들 중 3분의 1은 여러 권의 성경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인권단체 아티클18·세계기독교연대·오픈도어·미들리스트컨선이 18일 발표한 '2024년 공동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체포된 기독교인 수가 2022년 134명에서 2023년 166명으로 늘었고 6월부터 3개월 동안 100명 이상, 성탄절 기간에는 체포자 수가 더욱 급증했다. 또 이들 중 자신의 사건을 공개하는 데 동의한 사람은 거의 없어 '얼굴 없는 피해자'의 수가 증가했다. 작년 말까지 여름에 체포된 기독교인 중 최소 17명은 3개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았거나 벌금, 태형 등 비구속 처벌을 받았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사도행전 4:25-26,29)

하나님, 이슬람 국가 이란에서 극심한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받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 주십시오. 주의 자녀들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분노하며 부당한 처벌로 위협하고 있는 이란 정부를 책망하시고, 돌이켜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이란 성도들이 담대히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오픈도어,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위한 기도 요청**



오픈도어가 팔레스타인 거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역을 소개하며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기독교인은 교회 건물로 피신했다.

전쟁 전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은 약 1,070명이었다. 오픈도어는 “가톨릭교회 건물에 피난처를 마련한 가자시티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면서 “건물 안에는 수백 명이 거주하고 있어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피난처가 된 교회 주변 상황은 조금 나아지는 듯했으나,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 책임자는 “사람들은 교회 건물 밖으로 나와 다니거나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1월 말 교회 근처에서 전투가 다시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자지구 남쪽으로 떠나라고 명령했지만,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현지 파트너 책임자는 “이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사람들은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한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기독교인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오픈도어의 지원으로 교회들이 장난감을 구입해 가자 지구의 모든 기독 어린이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현재 오픈도어는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가자 지구에서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일하고 있다. 사역 내용은 현지 파트너, 교회와 협력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교회를 지원하며, 구체적으로 △훈련 △성경 및 기독교 자료 배포 △리더십 개발 △옹호 및 방문 사역 △지역 연구 △기도사역 등을 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교회 건물에 있는 수백 명의 기독교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 모임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학교를 가지 못해 예전처럼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미 받은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며 “이 끔찍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출처: 선교신문 종합).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15:20)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계속되는 분쟁의 어려움 가운데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보호받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을 속히 멈춰 주시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서 주님의 놋 성벽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화평케 하옵소서. 나라의 상황은 어둡고 여전히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팔레스타인과 함께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굳게 세워주시고 그 생명이 모든 영혼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중남미 교도소, 수용 한계 넘어서자 폭력조직이 통제

중남미 국가에서 교도소가 교도관 대신 폭력조직에 통제되면서 갱생 시설이 아니라 범죄를 재생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고 21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중남미 전역의 교도소에서 갱단이 아무 제지 없이 수감자들에게 권한을 행사하며, 돈을 뜯어내고 있다. 갱단 간부들은 교도소 안에서 조직을 원격으로 운영하고 살인과 납치 명령을 내리며 미국·유럽으로의 마약 밀매를 총괄한다. 중남미의 많은 국가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마약 범죄에도 유죄 판결을 더 많이 내리고 형량도 길어지면서 교도소가 수용인원 한계를 넘었다. 미주개발은행에 따르면 중남미의 교도소 인구는 2010-2020년 76% 급증했다. 재정과 인원 모두 턱없이 부족한 교정당국은 교도소 내 범죄조직 세력에 압도됐고, 수감자들은 폭력조직 손아귀에서 재범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누가복음 15:7)

하나님, 범죄에 대한 형벌과 교화를 위한 법적 조치가 무기력할 만큼 중남미 전역에 퍼져있는 폭력조직의 악행을 꾸짖으사 재범의 악순환이 끊어지도록 다스려 주소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와 그리스도뿐이오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 됨의 실상을 비추사 주께 자복하고 십자가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재정과 인원 부족으로 한계를 넘어선 중남미 상황을 긍휼히 여기사 주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 가자지구 무슬림 200명, 꿈과 환상 통해 예수 만나 영접

최근 가자지구에서 약 200명의 무슬림들이 환상과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 경험을 나눈 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16일 CBN뉴스가 전했다. 과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저격수였던 타이시르 아부 사다(73)는 “약 200명의 가자 주민들이 한꺼번에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다”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 나타나셨고, 서로 기뻐하며 모두가 같은 환상을 경험한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사다는 약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기독교로 개종, 자서전인 ‘한때 이라파트의 사나이’를 출간했다. 그는 “우리는 분명 부흥을 많이 경험하고, 많은 신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제 자선단체 ‘과부와 고아들’의 대표인 윌리엄 데블린 목사는 “많은 기독교인이 고통받는 무슬림들을 돕기 위해 가자지구에 남아 있다”며 “고난 한복판에서 많은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호소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립보서 1:6)

하나님, 가자지구의 무슬림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만나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난의 한복판에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많은 무슬림이 더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고통받는 무슬림들과 함께하는 단체와 기독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교회를 통해 계속되게 하소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실 선교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